‘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페터가 남긴 ‘그날’의 기록들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10주기를 맞아 오는 5일부터 특별전 ‘기록은 계속된다 푸른눈의 목격자, 힌츠페터가 남긴 유산’을 개최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80년 5월23일 제1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 힌츠페터 모습, 5월21일 분노한 시민들의 차량시위 모습들, 5월23일 가족을 잃은 유족들. 〈출처 한국일보·힌츠페터 촬영〉

내일 옛 전남도청서 10주기 특별전 개막 ‘기록은 계속된다…’ 내년 3월28일까지

사진·영상·취재수첩 등 유품 통해 기자정신·기록의 의미 조명
전일빌딩245서 학술포럼…무형유산적 가치와 전승 방안 논의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10주기를 맞아 기록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기념재단과 공동으로 오는 5일부터 내년 3월28일까지 옛 전남도청 도경찰국민원실 기획전시실에서 ‘기록은 계속된다 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페터가 남긴 유산’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힌츠페터는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외신기자로, 영화 ‘택시운전사’에 등장하는 독일 기자의 실제 모델이다.

이번 전시는 그가 남긴 사진과 영상, 개인 유품 등을 통해 평생 현장을 기록하고 진실을 전했던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조명한다.

전시는 ‘오월을 되살리다’, ‘세계를 보다’, ‘오월을 잇다’ 등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오월을 되살리다’에서는 계엄군의 통제를 피해 광주에 진입했던 과정과 당시 촬영한 사진·영상을 소개한다. 취재 앨범과 출장비 정산서, 이동 경로를 추정해 재구성한 지도 등을 통해 긴박했던 취재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2부 ‘세계를 보다’는 광주를 포함해 세계 각지의 현장을 기록한 힌츠페터의 활동을 조명한다. 그의 생활공간을 재현하고 여권과 수첩, 타자기, 취재용 테이프, 수집 도서 등 유품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세계 곳곳의 현장을 누볐던 언론인으로서의 삶과 시선을 들여다본다.

마지막 3부 ‘오월을 잇다’에서는 힌츠페터가 남긴 상패와 기념품,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관련 자료를 소개한다. 그가 남긴 기록의 유산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자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개막식은 5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이후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는 5·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2026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 강당에서는 ‘시민의 참여, 이어지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술포럼도 마련된다.

이번 포럼은 5·18과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시민참여와 연대, 공동체적 실천의 의미를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최정기 5·18국제연구원장과 이영배 국립경국대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기억과 시민참여 문화가 지닌 무형유산적 가치를 검토하고 전승·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전과 학술포럼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기록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지켜 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

골목 관광 브랜드 ‘동명아트호핑’ 런칭 성황

로컬 콘텐츠 엮는 도보형 예술관광 브랜드…런칭데이 선포식 개최

전남광주 동구 동명동 일대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카페·공방·전시 등 로컬 콘텐츠를 엮는 도보형 예술관광 브랜드인 ‘동명아트호핑’이 성황을 이루면서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31일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 야외광장 일원에서 골목 관광 브랜드인 ‘동명아트호핑’ 런칭데이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골목을 넘어, 취향을 호핑(Hopping)하다’는 슬로건으로 내걸은 ‘동명아트호핑’은 문화예술 거점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발견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된 도보형 예술관광 브랜드다.



이번 브랜드는 ▲쉬고(카페·쉼터) ▲만들고(공방) ▲보고(전시) ▲읽는(독립서점) 등 네 가지 테마의 문화예술 체험 경험을 관광 상품화해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문창현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런칭데이를 기점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동명동만의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방침”이라며 골목과 공간, 사람과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지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복 기자

늦가을 마주한 사계절의 꽃…‘순환의 사유’

국윤미술관, 오는 6일부터 김혁정 작가 초대기획전 ‘사유: 공감’展

늦가을 마주하는 사계절의 꽃을 통해 시각적 감상을 넘어 계절의 순환과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가 펼쳐진다.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오는 6일부터 12월13일까지 초대기획전 ‘사유: 공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앞서 2024년 박주하 작가를 시작으로 지역 원로 작가의 깊이 있는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전시를 기획해왔다. 올해는 김혁정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혁정은 밀도 높은 붓질과 수많은 색채로 일상의 사물, 자연, 상징적인 이미지를 고유한 시선으로 재해석해 작업의 근간을 다져온 작가로 꽃과 하늘, 별을 비롯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소재들에 삶의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철학적 매개체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에는 오얏꽃, 동백꽃, 매화 등 꽃을 소재로 사계절에 대한 감성을 이입해 작업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작가가 애정하는 오얏꽃의 오얏은 자두의 순우리말로 배꽃 이화(梨花)와 달리 이화(李花)라고 쓰며, 이씨 성(姓)과 같은 글자로 조선왕조의 역사와 함께한 꽃이다.

최근 작업실을 예술의거리 인근으로 이전한 작가는 익숙한 조형성과 색채의 틀에서 벗어나 한층 확장된 회화적 실험을 펼쳐낸다. /오복 기자



위로부터 ‘들꽃 향기’, ‘사계-봄’, ‘사계-여름’

